

분과 7

한국언어문화교육 일반 2

사회 :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연구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을 중심으로-

NGUYEN THI PHUONG THU(다낭대학교-외국어대학)

1. 서론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계통이 다르고 유형론적으로도 한국어는 교착어, 베트남어는 고립어에 속하여 언어 사용에 차이가 많다. Nguyen Huu Quynh(2001:43)에서 베트남어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문장의 어순과 허사¹⁾가 문장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어 문장에서 단어의 위치가 바뀌면 문장 안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바뀌게 되고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가. Nam(남- 주어) yêu(사랑하다) Mai(마이-목적어) (남이 마이를 사랑한다)
 나. Mai(마이- 주어) yêu(사랑하다) Nam(남- 목적어) (마이가 남을 사랑한다)
 다. 남이 마이를 사랑한다.
 라. 마이를 남이 사랑한다.

예문(1)을 통하여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여러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 중에서 한국어는 SOV 어순 유형에 속하는데 베트남어의 어순은 SVO인 것이다. 그리고 (1가)와 (1나)를 보면 베트남어에서는 어순이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다. (1가)와 (1나)는 베트남어 문장들인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Nam(남)과 Mai(마이)의 위치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또 다른 차이는 한국어에 문장 성분 인식 표지가 있는데 베트남어에는 문장 성분 인식 표지가 없다. (1다)와 (1라)의 한국어 문장을 보면 Nam(남)과 Mai(마이)의 위치가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에는 격조사가 발달되었기 때문인데 베트남어는 고립어이어서 한국어의 조사와 같은 개념이 없다.

이렇게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에 차이가 많은데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²⁾.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의 내포문 이해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며 내포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문을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Nguyen Thi Ly Kha(2008:9)에서 베트남어 품사에는 크게 실사와 허사 두 가지가 있는데 실사는 실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가 있고, 허사는 문법적인 의미만 있는 단어로 실사들 간의 의미적, 문법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고 부사, 관계사, 조사, 감탄사 등이 있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응웬 티 꾸잉안(2020)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 어휘 영역, 특히 한자어에 대한 대조 연구와 베트남 학습자의 발음 오류에 관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적 대조 연구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2) 가. 저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가. Tôi(저) học(공부하다) tiếng Hàn(한국어)

나.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베트남어를 가르친다.

나. Tôi(저) học(공부하다) tiếng Hàn(한국어) và(-고) dạy(가르치다) tiếng Việt(베트남어).

다. 저는 목요일에 집에서 멀지 않은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

다. Tôi(저) học(공부하다) tiếng Hàn(언어+한국=한국어) tại(에서) trung tâm tiếng(센터+언어=어학원) không(-지 않다) xa(멀다) nhà(집) vào(에) thứ ba(화요일).

예문(2)을 통하여 단문과 접속문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내포문의 문장 구조가 더 복잡한 것이 확인된다. 한국어 접속문과 베트남어 접속문³⁾은 문장 구조가 유사하고 문장이 확장되었는데도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모절을 2 개의 접속절로 나누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포문은 내포절이 모절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겨 있는 것은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같다. 그러나 문장 어순이 다르고 내포절의 위치와 내포문 구성 방법도 달라서 베트남 학습자에게 한국어 내포문의 문장 성분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내포문은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장 유형이기 때문에 내포문을 연구 주제로 선택하기로 하였다⁴⁾. 예문(2)은 간단한 내포문이고 문장이 더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내포문의 성분을 인식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장미라 (2008:1)에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란 한국어를 사용하여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들은 표현 영역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는 장미라(2012), 한송화(2015), 황선영(2015), 혁미평(2016), 김혜원·김은호(2019), 서희정(2018), 최보선(2019), 성지연(2010) 등이 있다.

성지연(2010)은 학습자 내포문에 나타나는 대치 오류와 통사적 제약을 어긴 것을 살펴본 연구이다. 황선영(2015)과 김혜원·김은호(2019)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으)ㄴ, ‘-기’ 명사절 내포문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연구한 것이다. 황선영(2015)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내포절 표지 인식 능력을 판단하고 문장 결합 과제를 통하여 명사절 사용 양상을 판단하였다. 김혜원·김은호(2019)는 학습자의 작문 분석을 통하여 사용 양상을 판단하고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통하여 명사절 표지 인식 능력을 판단하였다. 최보선(2019)은 한국인과 외국인 학문 목적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해서 관형절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서희정(2018)은 문장 구조 변화 과제를 통하여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을 살폈다. 혁미평(2016)은 중·고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관형사형 어미 및 관형절 내포문 유형에 대한 오류 분석을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내포문 표지를 잘 인식하는지와 내포문을 생성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들이고 길고 복잡한 내포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내포문에 대한 연구로는 내포문 오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한 덩티투히엔(2014)과 고급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관형사절 사용 양상을 연구한 팜홍프영(2016)만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도 역시 학습자들이 내포문을 쉽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로 학습자의 내포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표현 능력

3) 접속문은 한국어와 같이 대등적으로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유사해서 접속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내포문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문장 이해 능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한다.

4) 유형선(2007:61)에서는 국어교과서의 글은 전체 문장의 95.1%가 복문인데 이 중에서 내포문은 77.1%이고 접속문은 18%라고 하였다.

을 잘 할 수 있도록 이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한다. Anderson & Nunan(2008)에서 ‘왜 입력이 중요한가? 에 대해 언어 습득 엔진의 연료 역할을 하고, 초급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며, 표현 영역에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백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입력이 있어야 자기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득 과정에서 입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입력이 잘 되려면 먼저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을 잘 인식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를 조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내포문 성립 방식과 내포절의 위치를 대조하여 한국어 내포문을 인지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 후에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포문 이해 능력 평가 테스트를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내포문 이해도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절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2.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어 성분 내포문

2.1. 베트남어 성분 내포문

Diep Quang Ban(1992)에서 베트남어 내포문은 부속성분(보어⁵⁾, 관형어, 성분 부사어)에 주술관계가 나오거나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서술어에 주술관계가 나오는 문장이라고 하였다.

(3) Cháu(아이) khỏi(나아지다) bệnh(병) là(이다) nhờ(덕분) bác sĩ(의사)

우리 아이가 나아진 것은 의사 선생님 덕분에예요.

(4) Cái áo (옷) ấy(그), giá(값) là(이다) 100,000 nghìn vnd(십만 동).

그 옷은 가격이 십만동입니다.

(5) Tôi(나) không thích(싫다) anh(그는) nhìn(보다) tôi(나) như lúc này(이처럼)

당신이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을 싫어하다.

(6) Quyển sách(책) mà(한국어에 없음) anh(당신) cho(에게) tôi(나) mượn(빌리다) đã(과거 부사)⁶⁾ bị mất(잃어버리다).

네게 빌려준 그 책을 잃어버렸다.

(7) Em tôi(동생) cứ gào thét(소리를 지르다) cho đến khi(도록) đau họng(목이 아프다).

동생이 목이 아프도록 소리를 질렀다.

위에서는 베트남어의 5가지 주요 내포문 유형이다. (3), (4), (5), (6), (7)의 밑줄 친 부분은 순서대로 주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역할을 하고 주술 관계가 나타나는 절이어서 주술 관계가 나타나는 성분의 이름에 따라 주어 성분 내

5) 베트남어의 ‘보어’는 한국어의 보어와 다른 개념이다. 베트남어의 보어 개념은 동사, 형용사 앞이나 뒤에 나타나 서술어의 의미를 꾸며주는 것이다.

6) 한국어에 과거 표현은 관형사형의 어미인지 종결형의 선어말어미인지에 따라 표현이 다른데 베트남어에는 어떤 위치에도 ‘đã’라는 부사만 사용하고 한국어처럼 어미가 아니라 어휘라서 여기에서 ‘과거 부사’라고 대응시킨다.

포절, 서술어 성분 내포절, 보어 성분 내포절, 관형어 성분 내포절, 부사어 성분 내포절⁷⁾이라고 한다.

2.2.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어 성분 내포문 대조

현재까지 한국어 내포문 분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⁸⁾. 이 연구는 베트남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진행되는 연구이어서 국립국어원(2005 7:14)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한국어 내포문은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 내포문으로 나누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어 내포문 체계를 기준으로 대응가능한 베트남어 문장을 실현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 주면서 베트남 학습자의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 줄 것이다.

2.2.1. 명사절

한국어에서 명사절은 절이 명사화되어 문장 성분의 일부로 쓰이는 것으로,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8)

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가'. (Việc(것)) nấu(만들다) một(하나) món ăn(음식) ngon(맛있다) không(-지 않다) dễ dàng(쉽다).

나.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모르겠다.

나'. Tôi(나) không(-지 않다) biết(알다) (việc) tôi(나) đã(과거 부사) sai(틀리다) ở đâu(어디).

다. 오늘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거나 등산을 하기에 적합한 날씨다.

다'. Hôm nay(오늘) là(이다) thời tiết(날씨) thích hợp(적합하다) cho(에) việc(것) câu cá(낚시하다) hoặc(-거나) leo núi(등산하다).

라. 내 취미는 음악듣기이다.

라'. Sở thích(취미) của(의) tôi(나) là(이다) (việc) nghe(듣다) nhạc(음악).

(8가)는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절이고 베트남어 주어 내포절, (8나)는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절이고 베트남어 보어 내포절, (8다)는 부사어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절이고 베트남어 부사어 내포절(8라)은 서술어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절이고 베트남어 서술어 내포문과 대응된다. 베트남어에는 성분에 따라 내포절 유형을 분류하는데 한국어 명사절은 여러 가지 베트남어 내포절 유형에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예문(8)을 통하여 한국어의 명사절 성립 방법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현경 외(2018)에 따르면 명사형 어미 ‘-(으)ㄴ, -기’에 의한 명사절, ‘것 명사절’과 ‘의문 명사절’⁹⁾이 있다. 한국어 명사절은 ‘-(으)ㄴ, -기’명사형 어미나 ‘-는 것’이나 ‘-느냐/(으)냐’, ‘-는가/(으)는가’, ‘-는지/(으)는지/(으)는지’ 등과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를 필수적으로 취하여 이

7) 주어 성분 내포절, 서술어 성분 내포절, 보어 성분 내포절, 관형어 성분 내포절은 이하 주어 내포절, 서술어 내포절, 보어 내포절, 관형어 내포절, 부사어 내포절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8) 대표적으로 국립국어원(2005 7:14), 구분관 외(2015), 유현경 외(2018:440) 등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 제시한 한국어 내포문 체계가 다 다르다.

9) 유현경 외(2018:445)에서는 ‘것 명사절’은 절의 종결형에 ‘-는 것’이 붙거나 관형사절에 의존 명사 ‘것’이 붙어서 만들어진 구성이고 ‘의문 명사절’은 ‘-느냐/(으)냐’, ‘-는가/(으)는가’, ‘-는지/(으)는지/(으)는지’ 등의 의문의 종결 어미로 이루어진 구성이라고 개념하였다.

루어지는데 베트남어 문장을 보면 ‘việc’이라는 머리 명사¹⁰⁾로만 수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어미들은 베트남 학습자가 명사절의 기능으로 배우지 않고 따로 따로 하나의 문법으로 배우고 특히 ‘-(으)ㄴ’어미는 한국어 교재에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어미들을 다 인식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2.2. 관형사절

한국어의 내포절 중에서 관형사절이 베트남어 관형어 내포절과 가장 비슷한 것이다. 명사 앞에서 쓰일 수 있고 문장에서 관형어로 쓰이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관형사절은 구본관 외(2015:265)에 따르면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로 나뉘는데 베트남어에는 한국어처럼 나뉘어 있지 않다. 다음은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의 예문들을 살펴볼 것이다.

(9)

가. 누구나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 Ai(누구나) chắc cũng(을 것이다) có(있다) trải nghiệm (경험) bi(당하다) từ chối(거절).

나.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책이다.

나'. Đây(이것) là(이다) quyển sách(책) (mà) tôi(나) thích(좋아하다).

다. 이것은 어제 읽은 책이다.

다'. Đây(이것) là(이다) quyển sách(책) (mà) tôi(나) đã(과거 부사) đọc(읽다) hôm qua(어제).

라. 이것은 내일 읽을 책이다.

라'. Đây(이것) là(이다) quyển sách(책) (mà) tôi(나) sẽ(미래 부사)¹¹⁾ đọc(읽다) ngày mai(내일).

마. 이것은 내가 읽었던 책이다.

마'. Đây(이것) là(이다) quyển sách(책) (mà) tôi(나) đã từng(과거 완료 회상) đọc(읽다).

바. 내가 읽던 책이 없어졌다.

바'. Quyển sách(책) (mà) tôi(나) đang(진행상) đọc(읽다) dở biến mất rồi(없어졌다).

예문(9)는 한국어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 예문들이고 대응가능한 베트남어 문장들이다. 베트남어의 관형어 내포절은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로 나뉘어 있지 않다. 그리고 (9나')처럼 현재의 의미일 때는 따로 시간 표현 어휘를 사용하지 않다는 점이 다른 것 외에 다른 경우에 다 대응가능한 시간 표현 어휘가 있다. 과거일 때 ‘đã’(9다'), 미래일 때 ‘sẽ’(9라'), 과거 완료(회상)일 때 ‘đã từng’(9마'), 미완료(중단)일 때 ‘đang’(9바')이라는 어휘가 사용된다.

한국어의 관형사절과 베트남어 관형어 내포절의 뚜렷한 차이가 관형사절과 수식받는 명사의 어순이다. 한국어는 좌분지 언어로 관형사절이 명사 앞에 오지만 베트남어는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명사 뒤에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어 문장이 복잡하고 길어지면 한국어 내포문과 내포절의 성분 인식하기가 베트남 학습자에게 쉽지 않은 문제이다.

10) 여기에서 말한 머리 명사는 ‘관형어+관형사형 어미+머리명사’의 관형사절 구조에 나타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1) 한국어에 미래 표현은 과거 표현과 같이 관형사형의 어미인지 종결형의 선어말어미인지에 따라 표현이 다른데 베트남어에는 어떤 위치에도 ‘sẽ’라는 부사만 사용하고 한국어처럼 어미가 아니라 어휘라서 여기에서 ‘미래 부사’라고 대응시킨다.

2.3 인용절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인용절은 자신이나 남의 말, 글 또는 생각이나 판단 따위를 옮겨 와서 표현한 문장을 말한다. 인용절은 직접인용절과 간접인용절로 나뉜다. 그러나 직접인용절은 인용하는 말에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지 않아서 본 연구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다. 다음은 간접인용절 예문들을 보여 주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10)

가. 민수는 자기가 영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가'. Minsu đã(과거 부사) nói(말하다) rằng(한국어에 없음) anh ấy(그가) thích(좋아하다) YoungMi.

나. 민주는 집 주인에게 방이 넓으냐고 물었다.

나'. Minsu đã(과거 부사) hỏi(묻다) chủ nhà(집 주인) phòng(방) rộng(넓다) không(한국어에 없음).

다. 형은 나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다'. Anh trai(형) đã(과거 부사) bảo(명령하다) tôi(나) hãy(-라고) đi(가다) đến(에) trường(학교) đi(한국어에 없음).

라. 김선생님은 나에게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다.

라'. Thầy Kim(김 선생님) đã(과거 부사) rủ(피다) tôi(나) cùng(같이) dùng bữa(식사하다).

마. 민수가 지금 밖에 눈이 온다고 말했다.

마'. Minsu đã(과거 부사) nói(말하다) bây giờ(지금) tuyết(눈) đang(-고 있다) rơi(내리다).

한국어 인용절은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같은 인용형 어미를 통하여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 등의 인용 의미를 인식하는 반면에 베트남어에는 (10)예문에 보이는 것처럼 고립어라서 그러한 어미가 없고 주절의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로만 인용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가능한 단어가 있어서 한국어의 인용절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어 문장에 인용절이 항상 주절의 동사 뒤에 나오는데 한국어 문장에는 문장 앞이나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용절이 복잡하고 길어지면 주절과 내포절의 성분들을 인식하기가 베트남 학습자에게 쉽지 않을 것이다.

3.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3.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내포문 이해력을 평가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재 다낭대학교-외국어대학 한국어 학과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 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3학년 학생들은 중급 수준을 다 마치고 연세 한국어 5권을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과 같은 이론 수업들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그리고 한국어 중급 수준까지는 한국어 내포문의 모든 유형을 다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급으로 올라가는데 있어 복잡하고 길어진 문장들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대상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내포절 인식과 내포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한국어 내포문 이해 평가를 만들었다. 한국어 내포절 인식에 관한 질문들과 한국어 내포문 이해에 관한 질문들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내포절 인식을 확인하는 부분은 명사형 ‘-(으)ㄴ, -기’에 의한 명사절, ‘것’명사절, 의문 명사절을 가진 문장을 각각 한 문장, 동격 관형사절과 관계 관형사절을 가진 문장을 각각 한 문장과 간접 인용절을 가진 한 문장으로 총 6문장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 문장들을 보고 내포절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였다.

한국어 내포문 이해력을 확인하는 부분은 명사절을 가진 간단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 2개, 관형사절을 가진 간단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 2개, 인용절을 가진 간단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 2개로 총 6개의 문장을 토픽 중급 15, 16, 17회에서 추출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이 문장들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시켜서 문장을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지와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낭대학교-외국어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MS Team 플랫폼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학습자들에게 평가를 주기 전에 15분 동안 평가지 소개와 한국어 내포문에 대한 교육을 간단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문장 구조의 이해 능력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제공하고 단어 사전이나 문법 사전, 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시간은 40분으로 정했는데 학생들이 다 완성할 때까지는 60분이 걸렸다. 그리고 72명 중에서 1시간 반 넘어 제출한 학생 2명과 답장을 제대로 쓰지 않은 학생 1명을 제외하고 총 69명의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내포문 이해력 확인을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휘 선택이나 문장을 매끄럽게 썼는지는 평가하지 않고 문장 구조, 문장 성분을 맞게 인식하여 문장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는지만 평가하였다.

3.2. 결과 분석

먼저 내포절 인식 확인 부분을 살펴보자.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내포절에 대해 배운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내포절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의 정답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내포절 인식 확인 부분의 정답

문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포문 종류	관형사절	명사절	인용절	명사절	명사절	관형사절
정답 문장 수	39	62	49	63	64	52
비율	56.5%	90%	71%	91.3%	92.7%	75.4%

위의 학습자의 정답표를 보고 모든 문장의 정답률이 다 50%를 넘었다. 그리고 정답률이 제일 낮은 1번 (56.5%)과 6번 (75.4%)은 명사절 문장들인데 학습자의 오답은 ‘그 사람을 만난’까지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보면 학습자가 내포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절만 쓰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의 정답은 ‘방이 넓으냐고’인데 학습자의 오답은 ‘집 주인에게 방이 넓으냐고’ 집 주인이 주절의 성분인데 내포절의 성분으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은 내포문 이해 확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한국어에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시키는 것인데 번역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여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와 이해하는 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목적이어서 어휘나 베트남어 표현의 오류를 평가하는 데에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어 문장과 문장 구조나 문장 성분이 달라졌는데 문장의 의미를 맞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면 이 문장들도 틀린 문장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문제들을 분석할 때 베트남인 학습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한 명의 오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오류 양상으로 판단하였다.

내포문 이해 확인 부분의 정답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내포문 이해 확인 부분의 정답

문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내포문 종류	명사절	명사절	관형사절	관형사절	인용절	인용절
정답 문장 수	59	28	61	8	55	6
비율	85.5%	40.6%	88.4%	11.6%	79.7%	8.7%

윗표를 보면 간단한 문장의 정답률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정답률이 낮은 복잡한 문장 중에서 명사절을 가진 문장의 정답률이 제일 높고 관형절과 인용절을 가진 문장의 정답률이 비교적 낮다.

학습자들의 번역 문장들을 보고 주로 다음 표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표 3〉 베트남 학습자의 번역 문장에서 나타난 이해 문제

문장 의미가 이해 불가능한 문제	답을 못 쓰는 문장. 답을 써도 베트남어로 된 문장이지만 무슨 뜻인지 파악 못 하는 문장. 한국어 문장의 의미와 완전히 다른 문장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	문장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 하는 문장
내용을 자발적으로 더 넣는 문제	자발적으로 한국어 문장에 없는 내용을 더 넣는 문장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	내포절의 표지, 내포절 구성 방법을 인식하지 못 하거나 이해하지 못 하는 문장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	모절이나 내포절의 성분을 인식 못 하는 문장

3.2.1. 문장 의미가 이해 불가능한 문제

먼저 문장 의미가 이해 불가능한 문장들을 살펴보자. 번역 문장은 6개이고 총 학습자 수는 69명이어서 학습자의 총 문장 개수는 414이다. 이 중에서 문장 의미가 이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문장들은 총 29문장(7%정도)이고 주로 5, 6번 문장에 나타난다. 마지막 문장들이기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답을 잘 못 쓰거나 쓸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학습자의 답을 몇 가지 보여 주면서 문제를 설명해보자.

(11)

가. Hơn nữa, cái đó có thể hài hòa với môi trường đi chăng nữa thì cũng phải suy nghĩ xem sao. (게다가, 그것은 자연과 어울려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나. tôi nghĩ rằng là đối phương có trong đoạn hội thoại với người Mỹ nếu bản thân không nhìn thẳng thì cuộc nói chuyện của mình không có hứng thú. (내가 생각한다, 미국과 대화에 있는 상대방이, 본인이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본인의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

다. Gần đây dễ bắt gặp những người mà không hoan nghênh sự phát triển của khoa học kĩ thuật, và họ chủ trương rằng những điều đó sẽ mang đến những kết quả bi kịch mà làm phá hủy hoàn toàn tự nhiên hơn là những gì chúng ta đã thu được từ phát triển khoa học. (최근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과학 기술 발전으로 얻는 것보다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11)의 문장들을 보면 (11가)와 (11다)는 한국어 문장의 의미와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11나) 문장은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3.2.2.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

이 문제는 다른 문장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주로 2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이다.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를 가진 문장 수는 총 414문장 중에 46개(11.1%) 문장이다.

(12)

가. Và hãy suy nghĩ thử rằng có thể hòa hợp tốt với môi trường tự nhiên nơi đây không. (여기 자연과 잘 조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나. Trong khi đó, màu sắc sắc sỡ và kiểu dáng độc đáo chủ yếu được sử dụng cho trang phục nữ cũng được áp dụng cho trang phục nam giới, và nỗ lực táo bạo sử dụng hạt cườm, trang trí ruy băng và ren mỏng, vốn được cho là chỉ dành riêng cho phụ nữ, đã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của tràng pháo tay. (여성복에 쓰였던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이 남성복에도 적용되고 여성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어진 구슬, 리본 장식, 얇은 레이스 등을 활용한 과감한 시도가 큰 박수를 받았다.)

다. Tuy nhiên, tôi sẽ hỏi những học sinh chuẩn bị xin việc là ở trong thời đại mà sự cạnh tranh tìm việc ngày càng khốc liệt này, thì họ lựa chọn công việc tích lũy kinh nghiệm dù là 1 ngày và không quá để ý đến những điều kiện như tính ổn định hay lương bổng. (그러나 갈수록 취업 경쟁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안정성과 보수 등의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도 취직해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질문해 본다.)

(12)의 문장들은 베트남어로 옮길 때 문장의 중요한 내용이 빠진 문장들이다. (12가)는 내포절의 주어 ‘그것이’가 없고, (12나)는 한국어 문장 끝에 나오는 ‘-기 때문에’이유 표현이 없고, (12다)는 문장 명사절의 ‘...봄은 어떨지’부분의 내용이 없었다. (12나)와 (12다)의 문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들이다. (12나)의 경우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 해 인터넷 번역 서비스를 사용해서 문장 번역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번역기에서 나오는 결과와 많은 학습자의 답이 똑같고 문장에는 이유 표현이 모두 없었다. (12다)의 경우는 ‘...봄은 어떨지’부분에 나타나는 명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해서 그것을 회피하여 그 내용을 옮기지 않았다.

3.2.3. 내용을 자발적으로 더 넣는 문제

이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총 414문장 중에 6개(1.45%) 문장이다. 문장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 단어 몇 가지를 더 넣어서 번역해도 되지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된다. 내용은 다음 예문과 같다.

(13) Đạo gần đây dễ bắt gặp những người không hoan nghênh sự phát triển của khoa học kĩ thuật nhưng họ so với việc **chúng ta tin vào nó thì việc tin vào cái mất đi** là nhiều hơn bắt đầu từ sự phát triển của khoa học kĩ thuật và cuối cùng thì khoa học khẳng định rằng dẫn tới kết quả bi kịch đó hoàn toàn là do tự nhiên gây ra. (최근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보다 과학 기술 발전으로 잃는 것이 더 많고 결국 과학이 그 비극적 결과가 완전히 자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을 더 넣은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해서 한국어 문장과 상관없는 내용을 더 넣고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고 있다.

3.2.4.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

이 문제는 다른 문장에서도 종종 생기는데 주로 2번 문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총 414개 문장 중에 28개(6.8%)의 문장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 다음 문장을 보여 주고 설명할 것이다.

(14)

가. Tuy nhiên, trong thời điểm cạnh tranh tìm việc ngày càng gay gắt như hiện nay, chúng tôi hỏi những người tìm việc **làm thế** nào để họ cân nhắc tìm được việc làm sớm ít nhất một ngày và tích lũy kinh nghiệm thực tế mà không bị ám ảnh bởi các điều kiện như tính ổn định và lương bổng. (그러나 갈수록 취업 경쟁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안정성과 보수 등의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하루라도 취업할 수 있는지 취업 준비생에게 물어본다)

(14가)는 한국어 문장에 나오는 ‘...봄은 어떨지’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해서 다른 표현으로 내용을 잘 못 옮기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학습자들이 인터넷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여 문장을 번역했다고 추측된다. 인터넷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번역된 문장이 학습자들의 문장과 같고 ‘...봄은 어떨지’부분의 명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3.2.5.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총 414개 문장 중에 85개(20.5%) 문장이다. 이 문제는 4번 문장과 6번 문장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15)

가. Trong thời gian qua, bởi vì việc áp dụng vào trang phục nam giới màu sắc rực rỡ và thiết kế mang tính phá cách mà chủ yếu được sử dụng cho phụ nữ **và** thử nghiệm táo bạo áp dụng các vật được suy nghĩ là sở hữu riêng của phụ nữ như viên hạt, đồ trang trí ruy băng, ren mỏng đã nhận được sự hoan nghênh lớn. (그 동안 여성복에 쓰였던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남성복에 적용되는 것과 여성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었던 구슬, 리본 장식, 얇은 레이스를 활용한 시도가 큰 박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 Có thể dễ dàng bắt gặp những người không hoan nghênh với sự phát triển của khoa học kĩ thuật nhưng những người đó có chủ trương rằng **từ khi khoa học bắt đầu phát triển** cái mất đi nhiều hơn cái chúng ta đạt được và khoa học mang lại kết quả tiêu cực má nó phá hoại đi tự nhiên. (과학 기술의 발전을 환영

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과학이 자연을 파괴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다)

- 다. Gần đây có thể dễ dàng gặp được những người không hoan nghênh sự phát triển của khoa học kỹ thuật và họ chủ trương rằng có nhiều thứ bị mất hơn những gì chúng ta đạt được từ sự phát triển của khkt và cuối cùng khoa học sẽ mang lại bi kịch là phá hủy hoàn toàn thiên nhiên. (최근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결국에는 과학때문에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5가)의 경우는 한국어 문장은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이 남성복에 적용된 것은 그 과감한 시도의 결과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트남어로 번역된 문장은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이 남성복에 적용된 것과 과감한 시도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 되었다.

(15나)의 경우는 한국어 문장에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 관형사절의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절의 부사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베트남어 문장에는 밑줄 친 부분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시작될 때부터로 번역되어 문장의 부사어로 변경하게 되었다.

(15다)의 경우는 ‘과학’이 ‘결과’를 수식해 주는 절의 주어인데 ‘과학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절의 주어로 잘 못 인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로 베트남어로 번역된 문장의 문제 중에서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와 같은 이 3가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길고 복잡한 내포문들의 내포절 표지, 내포절과 주절의 성분들을 인식하지 못 하여 생긴 문제라고 판단된다.

3.2.6. 문장별로 문제 양상

위에서는 학습자의 베트남어 문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문장별로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인지를 알아보자.

간단한 문장들의 경우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 4번, 6번과 같은 복잡한 문장만 관찰해보자.

2번 문장 같은 경우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와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이다. 이는 ‘...봄은 어떨지’이 부분에 나타나는 표지를 인식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회피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명사형 어미 ‘-(으)’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내포문의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다고 본다.

4번 문장의 경우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터넷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로 구글 번역기에 나오는 문장을 똑같이 쓰는 답이 많았다. 구글 번역기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유 표현 ‘-기 때문에’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답을 쓰인 문장들의 경우 이유 표현 ‘-기 때문에’의 번역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한국어 문장은 그런 색상이나 디자인을 남성복에 적용된 것은 그러한 과감한 시도를 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 때문에 발생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였다. 대부분은 남성복에 적용하는 것과 그러한 시도가 둘 다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하였다. 여기의 문제는 학습자가 관

형사절을 인식하지 못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성분이 복잡해져서 ‘N은/는 N 때문이다’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된다.

6번 문장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인용절을 인식하지 못 해서 문장 의미를 잘 못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대부분은 인용절 안에 있는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것도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성분이 복잡해져서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분석을 보면 내포절 표지 인식을 제일 못 것은 ‘-(으)ㄴ’명사형 어미이고 관형사절과 인용절의 표지를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내포문 유형이든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길고 복잡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로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 하거나 내포문의 성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문장과 베트남어 문장에 차이점이 많아서 베트남인 학습자가 길고 복잡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베트남어 성분 내포문을 소개하고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어 내포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그 후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내포절 인식과 한국어 내포문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를 만들어서 다낭대학교-외국어대학 3학년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학습자들이 한국어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특히 관형사절에 대한 인식이 다른 유형보다 좋지 않다. 그것은 내포절 인식 확인 질문들과 내포문 이해 확인 질문들의 학습자 정답률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둘째,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고 복잡한 내포문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다.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문장 의미가 이해 불가능한 문제’, ‘문장 내용이 누락된 문제’, ‘내용을 자발적으로 더 넣는 문제’, ‘내포절 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문장 성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다 내포절의 표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포문의 성분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외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왔는데 학습자들이 구글 번역 등과 같은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도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내포문을 빠르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사형 어미, 전성어미, 인용어미 등과 같은 내포절 표지에 대해 가르칠 때 문장 구조에 관련된 지식을 연결하여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기능,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교육해 주는 게 좋다고 본다.

이 연구는 내포문을 이해, 확인하는 부분으로 한국어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어 문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저자 혼자만 해서는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하여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들의 실제 한국어 문장 사용 능력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

■ 참고문헌 ■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원·김은호(2019),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 내포문의 실현과 학문 목적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연구」, 『언어와 문화』 1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57-96.
- 딩티투히엔(2014),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내포 문의 오류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희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 다양화를 위한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72호, 이중언어학회, pp. 87-121.
- 성지연(2010),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연구: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pp.51-75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성·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유형선(2007),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성과 문형에 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29호, 우리어문학회, 51~70쪽.
- 응웬 티 꾸잉안(2020),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 12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pp.151-175.
- 장미라(2008), 「문장 구조 중심 한국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라(2012), 「한국어 복문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명사절의 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31-359.
- 최보선·박수진(2019),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연구 -한국인 대학생과의 실제적 언어 사용 비교 관점에서」, 『문화와 융합』 4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pp.483-518.
- 팜홍프엉(2016), 「베트남 고급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한국어 관형사절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리터러시 연구』 18호, 한국리터러시학회, pp.189-222.
- 한송화(2015),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절 사용 양상과 언어 발달 연구- 숙달도와 언어권의 차이 중심으로」, 『어문론총』 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pp.59-93.
- 황선영(2015), 「학문 목적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으)ㄴ’, ‘-기’ 명사절 인식 및 생산 연구」, 『언어와 문화』 11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pp.351-370.
- 혁미평·홍종선(2016), 「중국어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3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pp.115-148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 Nguyen Huu Quynh(2001), 『Ngữ pháp tiếng Việt-phần 1』, Nxb Từ điển bách khoa(『베트남어 문법 1권』, 백과사전 출판사).
- Nguyen Thi Ly Kha(2008), 『Giáo trình tiếng Việt II- phần 2』, Nxb Đại học sư phạm(『베트남어 교재 II-2권』, 사범대 출판사)
- Diep Quang Ban(1992), 『Ngữ pháp tiếng Việt tập 2』, Nhà xuất bản giáo dục(『베트남어 문법 2권』, 교육출판사).

<부록 1>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측정 텍스트

내포문 이해도 측정 텍스트

I. 인적사항:

1. 이름:
2. 몇 학년 학생:

II. 내포문 통사론에 관한 질문:

다음 문장들은 내포절이 무엇인지 찾고 어떤 방식으로 내포절이 이루어졌는지 답해 주십시오. (베트남어로 자유 기술)
 Hãy chỉ ra các vế câu phức được bao trong các câu tiếng Hàn dưới đây và trả lời về câu phức đó được hình thành bằng phương thức nào. (Có thể viết tự do bằng tiếng Việt)

Câu phức là câu được hình thành từ hai cụm chủ-vị trở lên, trong đó chỉ có một cụm chủ-vị là nòng cốt câu, cụm chủ-vị còn lại là một vế câu được bao bên trong nòng cốt câu. Trong tiếng Hàn theo giáo trình tiếng Hà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ủa Viện Ngôn ngữ Hàn Quốc câu phức tiếng Hàn có 3 dạng chính: câu phức có vế câu dạng danh từ(명사절 내포문), câu phức có vế câu dạng định ngữ(관형사절 내포문), câu phức có vế câu dạng gián tiếp(인용절 내포문)

1.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
2.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
3. 민수는 집주인에게 방이 넓으냐고 물었다.
 -->
4. 나는 그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
5. 나는 동생이 결혼했다는 것을 들었다.
 -->
6. 동생은 엄마가 해 준 음식을 제일 좋아한다.
 -->

III. 내포문 이해 확인에 관한 질문:

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그리고 그것이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자연 환경: môi trường tự nhiên / 조화: hài hòa, hòa hợp)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2. 그러나 갈수록 취업 경쟁이 심해지는 이 시기에 안정성과 보수 등의 조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하루라도 먼저 취직해 현장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해 고려해 봄은 어떨지 취업 준비생들에게 질문해 본다.

(취업 경쟁: cạnh tranh tìm việc / 안정성: tính ổn định / 보수: lương bổng /

지나치다: quá, thái quá / 집착하다: quynh luyén, vẩn vương / 현장 경험: kinh nghiệm thực tế)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3. 내가 상자 속의 물건들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언젠가 그 물건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4. 그 동안 주로 여성복에 쓰였던 화려한 색상과 파격적인 디자인이 남성복에도 적용된 것은 물론 여성의 전유물로만 생각되었던 구슬, 리본 장식, 얇은 레이스 등을 활용한 과감한 시도가 큰 박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파격적이다: phá cách / 디자인: thiết kế / 적용되다: áp dụng / 전유물: vật sở hữu riêng

구슬: viên, hạt / 리본 장식: đồ trang trí ruy băng, nơ / 얇은 레이스: ren mỏng

과감하다: quá cảm, dũng cảm / 시도: thử nghiệm)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5. 미국인들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없다고 생각한다.

(상대방: đối phương / 쳐다보다: nhìn thẳng / 흥미없다: không hứng thú)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6. 최근에 과학 기술의 발전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고 결국에는 과학이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학 기술: khoa học kỹ thuật / 환영하다: hoan nghênh / 얻다: đạt được

잃다: mất đi / 완전히: hoàn toàn, một cách trọn vẹn / 파괴하다: phá hủy

비극적이다: bi kịch / 주장하다: chủ trương, khẳng định

-->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토론〉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도 평가 연구
-명사절, 관형사절, 인용절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유소영(단국대학교)

한국어 내포문과 베트남어 내포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베트남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한국어 내포문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래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한류의 확산,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 진출 등의 영향으로 한-베 통-번역 인력 수요도 증가하여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유창한 한국어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양국어 간의 차이에서 오는 내포문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흥미를 끄는 연구입니다. 이에 선생님의 논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연구자께서는 3.2절의 분석 결과 중 <표3>에 제시한 번역 문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양상을 중심으로 내포문 이해 정도를 측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내포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와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3학년으로 특정 교재를 사용한다는 사실 외에 참여자 개별적인 숙달도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논리의 일관성 유지와 잉여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주 7)은 본문과 같은 내용인데 ‘~~~이라고 한다’와 ‘~~~이라고 지칭한다’의 서술 부분에서 ‘한다’와 ‘지칭한다’의 차이로 각주를 달 필요가 있을까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문 이해도 측정 텍스트의 1번 문항은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에 대한 분석 결과 중 <표1>의 1번 문항과 문장 설명 부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시사점 중 구글 번역과 같은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하고도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통해 내포문 표지를 교수할 때 문장 구조 관련 지식과 문장 연결, 기능, 화용적 측면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자의 제안은 내포문 교육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좋은 제안이지만, 이 제안이 도출되는 과정이 번역 프로그램 이용이라는 부분은 연구의 논지를 흐리는 것이 아닐까요? 번역 프로그램 사용은 한국어의 언어 지식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임시방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연구는 베트남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내포문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논문으로 베트남어 모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딪히게 되는 문장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한국어 문장 구조 이해도 측정과 한국어 의미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

는 기저 연구로서 완성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의 좁은 식견으로 연구자의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 사용 양상

-인용 오류를 중심으로-

유민애(고려대학교)

1. 서론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진 지식 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즉, 지식은 단순히 안다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하고 체계화해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글쓰기 역시 정보의 단순한 축적이나 요약이 아니라 필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writing from sources)¹⁾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글쓰기 핵심 역량은 외부의 자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자료 사용 능력(source use competence)’이 되었으며, 이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로 실현되는 것이다(최숙기, 2018:201).

이러한 자료 통합적 글쓰기는 ‘인용’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이해한 만큼 자신의 글에 활용하는 인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에 사용된 자료들의 출처가 분명하고 사실에 부합해서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써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등을 판별하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학부생의 학술적인 글에서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²⁾ 손달임(2021:27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생의 보고서나 학술적인 글, 발표 자료 등을 보면 인용 표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 사용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 학부생들은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외부 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자료의 종류도 인터넷이나 비학술적인 자료에 치우쳐 있으며, 자료 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문제가 있다(최은지, 2009; 이인영, 2011b).

1) 김지민(2019:13)에서는 국내에서 ‘Source-Based Writing’, ‘Writing From Sources’라는 용어가 연구자마다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자료 기반 쓰기, 자료 활용 글쓰기, 자료 통합적 쓰기, 자료로부터 쓰기’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민경(2013:65)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글에 활용하여 쓰되, 자료의 통합 양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쓰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자료의 내용을 인용, 요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글의 일부로 구성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 대신에 통합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료 통합적 글쓰기’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2) 이것은 비단 외국인 학부생의 글쓰기에만 노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인영(20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인 대학생의 글에서도 자료 이용에 관한 오류는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학부생의 글에서는 자료 사용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학부생의 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자료 사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자료 통합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보고서 장르를 중심으로 실제 외국인 학부생의 자료 사용 양상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A 대학교에서 2021년 1학기 <글쓰기>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 자료 27편을 대상으로 자료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인용 방식의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료 통합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는 참고 자료와 적절하게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관점에서 쓰기를 위한 읽기(reading to write), 읽기를 위한 쓰기(writing to read), 담화 종합(discourse synthesis)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혜정, 2004; 최숙기, 2012). 이러한 연구의 시초는 Spivey(1984)에서 ‘discourse synthesi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쓰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최은지, 2009). 여기에서 ‘담화 종합’이란 ‘필자가 여러 텍스트를 읽고 그와 관련된 의미를 구성하여 자신의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pivey, 1997). 이후 ‘자료 통합적 쓰기(writing from sources)’, ‘쓰기를 위한 읽기(reading to write)’ 등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writing from sources’라는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료 기반 쓰기(송치순, 2014), 자료 활용 글쓰기(심유나, 2014), 자료 통합적 쓰기(강민경, 2013; 장성민, 2015), 자료로부터 쓰기(최승식, 2015)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강민경(2013:65)에서는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글에 활용하여 쓰되, 자료의 통합 양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쓰기’라고 제시한 것과 같이, 필자가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글의 일부로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riting from sources’를 ‘자료 통합적 글쓰기’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이것은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자료의 정보를 자신의 글에 통합하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숙기(2018:204)에서는 다수의 자료 텍스트(multiple text)들로부터 필요 정보를 선별하고 자료를 통합하는 문식 행위라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자료 통합적 글쓰기는 정보의 선별 기능과 정보의 통합 기능을 하위 기능을 토대로 읽기와 쓰기가 통합한 문식 행위이자 다수의 자료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보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2.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의 인용

이수상(1999:29)에서는 “학문의 발전은 인용이라고 하는 독특한 학문의 자연 증식 방법의 덕택”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인용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학술적인 글에서 ‘인용’이란 자신의 논의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용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을 자신의 글에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의를 풍부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최선경(2009:317)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이 원문과 자신의 글 속에서 새로운 연결 관계와 의미망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은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 자료를 형식에 맞게 정리하여 배

열하는 형식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인영(2011b)에서는 외국인 학부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자료 이용과 관련한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자료 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짐을 밝혔다. 즉 자료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자료 이용의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용의 효과성과 세부적인 인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뿐만 아니라 이유경(2016)에서도 외국인 학부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주로 ‘-에 의하면’, ‘-에 따르면’, ‘-다고 하다’ 등의 인용 표현만 사용하고, 원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모사(copy)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앞선 이인영(2011b)의 연구와 같이 외국인 학부생들은 인용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왜 인용해야 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은지(2009)에서는 대학의 학문적 상황에서 가장 많이 부과되는 보고서 작문을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구조 지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자료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국인 보고서에서 ‘상’ 평가를 받는 보고서는 대체로 다양한 외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하’ 평가를 받은 보고서는 외부의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글과 연계시키는 지식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절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보고서는 외부의 자료 이용도가 매우 낮았으며, 필자 자신의 기존 지식 중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외부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보고서 내용에 통합시키지 못하거나 자료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적절하지 못한 자료 이용 양상을 보였으며,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표절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선별하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 능력이 강조되었다. 즉,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의 인용은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 자료를 형식에 맞게 정리, 배열하는 형식적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술적 글쓰기 전략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 통합적 글쓰기 전략으로서 인용은 형식적인 측면(직접인용/간접인용)에서 방법적인 측면(환언하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외국인 학부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서 인용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인용 방식의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A 대학교에서 2021년 1학기에 <글쓰기>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 자료 27편을 표집하였다.³⁾ 또한 외국인 학부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고급 수준으로 동일하지만⁴⁾ 보고서 수준은 차이가 있다. 이에 평가 기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상’ 보고서 자료는 9편, ‘중’ 보고서 자료는 9편, ‘하’ 보고서 자료는 9편으로 분류하였다.

3) 표집 방법은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연구의 편의상 연구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동의하에 보고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4) A 대학교에서는 공통 교양 교과목인 <글쓰기> 과목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분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분반은 자체 레벨 테스트와 한국어능력시험(TOPIK)으로 결정된다.

이 보고서 자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 혹은 ‘과학과 식량’이라는 대주제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해 보고서를 쓰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인용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이 기말 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자료 28편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자료 사용 양상을 살펴 보고,⁵⁾ 이 중에서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이 드러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2. 분석 도구 및 방법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 자료에서 자료 사용 양상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외국인 학부생들이 보고서 작성 시에 어느 정도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총 어절 수와 자료 사용이 나타난 어절 수를 산출하고, 이 두 값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자료 사용 비율이 보고서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통계 처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서 자료에서 분류 번호를 붙이고, 표지, 목차, 참고문헌을 삭제한 ‘본문글’과 자료 사용이 나타난 ‘인용글’로 구분하여 말뭉치 파일을 가공하였다. 이 파일은 ‘Voyant tools’⁶⁾ 프로그램 이용하여 어절 수를 확인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인 학부생들이 보고서 작성 시에 어떤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용글’ 말뭉치에서 자료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였다. 자료 유형은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인터넷 신문 포함), 연구보고서, 외국 자료⁷⁾로 분류하였다. 또한 빈도수를 산출할 때는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용 부분에서 사용한 것만을 수량화하였다. 또한 자료 유형이 보고서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통계 처리를 하였다.

셋째,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 자료에 나타난 인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인용글’ 말뭉치에서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이 나타난 부분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인용 부분에서 부적절한 인용이 나타난 부분을 대상으로 ‘인용오류’ 말뭉치로 가공하였다. ‘인용오류’ 말뭉치에 제시된 모든 오류 유형을 수렴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서지정보 오류’, ‘인용 방식의 오류’, ‘인용 내용의 오류’로 유형화하였다. 서지정보 오류는 ‘정보 누락, 정보 부정확, 재인용 미명시’로 하위 분류하였고, 인용 방식의 오류는 ‘인용 표시(구) 누락, 부적절한 간접인용, 부적절한 직접인용’으로 하위 분류하였고, 인용 내용의 오류는 ‘자의적 해석, 관련성 결여’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인용 오류 양상을 수량화하였으며, 인용 오류 양상이 보고서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통계적인 처리를 하였다.

5) 물론 자료 사용 양상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자료를 이용하였더라도 자신의 지식으로 습득하고 자신의 기존 지식에 연결하여 글을 작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인 수치를 통해 자료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참고문헌, 각주 등의 언급을 통해 자료를 인용한 것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 ‘Voyant tools’는 스테판 싱클레어(Stefan Sinclair)와 제프리 록웰(Geoffery Rockwell)이 개발한 웹 기반 텍스트 분석 도구로, <https://voyant-tools.org>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7) 외국인 학습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국의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자국의 자료를 포함한 것을 ‘외국 자료’의 범주로 묶었다.

4. 연구 결과

4.1.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사용 양상 분석

(1) 자료 사용 비율

외국인 학부생들이 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생들이 사용한 글의 총 어절 수와 인용이 나타난 어절 수의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을 제시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 사용에 대한 기술 통계

	상(N=9)		중(N=9)		하(N=9)		전체(N=27)	
	M	SD	M	SD	M	SD	M	SD
총 어절 수	1999.67	807.68	1567.11	432.53	1633.78	1540.98	1733.52	1013.16
인용어절 수	536.22	260.13	458.44	211.11	613.11	744.87	535.92	457.59
비율(%)	26.66	8.55	31.33	18.28	36.16	18.80	31.38	15.80

위 표와 같이, 외국인 학부생들은 평균적으로 1733.52 어절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중에서 535.92 어절을 인용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31.38%의 비율이다. 보고서 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하 > 중 > 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보고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료를 인용한 어절 수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참고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이는 Weigle & Parker(2012:12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다는(textual borrowing)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Cumming et al. (2005)에서는 능숙한 필자는 17-22%의 비율로 자료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미숙한 필자는 33-37%의 비율로 자료의 단어를 가져옴을 밝혔다(Weigle & Parker(2012:139)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Cumming et al. (2005)의 연구 결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료 인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⁸⁾ 결국 능숙도(proficiency)에 따라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자료 인용이 나타난 어절 수의 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능숙한 필자는 자료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글쓰기를 하는 반면에 미숙한 필자는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 유형 빈도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외국인 학부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된 자료의 유형과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학부생의 '인용글' 말뭉치를 토대로 자료 유형별 빈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8) 인용의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어절 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자료 유형별 사용 빈도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자료	신문기사	연구보고서	외국자료	총계
상	0	19	1	16	14	10	21	81
	0%	23.5%	1.2%	19.8%	17.3%	12.3%	25.9%	
중	5	5	0	25	8	0	26	69
	7.2%	7.2%	0%	36.2%	11.6%	0%	37.7%	
하	0	9	1	16	8	2	22	58
	0%	15.5%	1.7%	27.6%	13.8%	3.4%	37.9%	

위 표와 같이 상 집단의 보고서일수록 자료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용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 하 집단은 인터넷 자료와 외국 자료(자국 자료)의 이용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다양한 자료 유형과 높은 빈도가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Knight-Davis & Sung, 2008; 이인영(2011:285)에서 재인용). 즉, 능숙한 필자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 빈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료 유형이 보고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자료 유형이 보고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p)
	회계계수(B)	표준화오류	베타(β)	
(상수)	52.675	17.947	-	2.935
단행본	0.299	0.596	0.108	0.503
학술논문	0.227	0.324	0.206	0.701
학위논문	0.992	1.574	0.145	0.630
신문기사	0.052	0.379	0.041	0.138
연구보고서	0.944	0.679	0.341	1.390
외국자료	0.057	0.227	0.080	0.250
$F(p)$.755**			
수정된 R^2	-.060			
Durbin-Watson	1.510			

**p<.01

그러나 위 표와 같이 유의확률(p) 값이 0.05보다 크며, 수정된 $R^2=-0.060$ 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자료 유형 중에서 어떤 자료 유형이 보고서 수준에 상대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연구보고서 $\beta=0.341$ 이 보고서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신문기사 $\beta=0.041$ 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4.2.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인용 양상 분석

(1) 인용 방식

〈표 4〉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의 빈도수

	상(N=9)		중(N=9)		하(N=9)		전체(N=27)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간접인용	85	9.44	67	7.44	42	4.66	194	64.66
직접인용	21	2.33	3	0.33	17	1.88	41	13.66
전체	106		70		59		235	

외국인 학부생들의 인용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이 사용된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직접인용(41회)보다 간접인용(194회)의 방식을 선호하였다. 최숙기(2018:216)에서는 일반적으로 간접인용은 직접인용에 비해 원자료의 정보를 필자가 자신의 자료에 심도 깊은 고려를 하여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미숙한 필자일수록 간접인용보다 직접인용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참조한 자료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미숙한 필자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 하 집단에서도 직접인용보다 간접인용 방식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부적절한 간접인용 오류, 즉 직접인용에 가까운 간접인용을 한 오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인용 방식의 횟수가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선행 연구와 같이 미숙한 필자는 능숙한 필자보다 원자료의 정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인용 오류

부적절한 인용이 나타난 ‘인용오류’ 말뭉치는 서지정보 오류, 인용 방식의 오류, 인용 내용의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술 통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 인용 오류의 빈도와 평균

	상(N=9)		중(N=9)		하(N=9)		전체(N=27)	
	M	비율	M	비율	M	비율	M	비율
서지정보 오류	9.11	77.4%	6.33	81.4%	9.40	79.7%	62.00	45.1%
인용 방식 오류	0.67	5.7%	1.67	21.4%	7.40	62.7%	19.33	29.8%
인용 내용 오류	0.11	0.9%	0.00	0.0%	0.60	5.1%	1.33	25.1%

위 표와 같이, 서지정보 오류가 45.1%로 가장 많은 오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인용 방식 오류, 인용 내용 오류 순이었다. 또한 집단별로 전체 인용이 나타난 빈도를 기준으로 오류 비율을 살펴보면, 서지정보 오류는 중 > 하 > 상, 인용 방식 오류는 하 > 중 > 상, 인용 내용 오류는 하 > 상 > 중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 오류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유의수준(p) 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각 집단 간에 오류 유형의 평균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6〉 오류 유형별 집단별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서지정보 오류	집단-간	9127,249	11	829,750	1,005	0,485*
	집단-내	12385,714	15	825,714		
	전체	21512,963	26			
인용 방식 오류	집단-간	8639,630	10	863,963	1,074	0,434*
	집단-내	12873,333	16	804,583		
	전체	21512,963	26			
인용 내용 오류	집단-간	1512,963	2	756,481	0,908	0,417*
	집단-내	20000,000	24	833,333		
	전체	21512,963	26			

*p<.05

한편 오류 영역별로 오류 빈도와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세부 오류 유형별 오류 빈도와 비율

	서지정보			인용 방식			인용 내용	
	정보누락	정보 부정확	재인용 미명시	인용 표시(구)누락	부적절한 간접인용	부적절한 직접인용	자의적 해석	관련성 결여
상	22	56	4	0	4	2	0	1
	24,7%	62,9%	4,5%	0,0%	4,5%	2,2%	0,0%	1,1%
중	9	46	2	5	10	0	0	0
	12,5%	63,9%	2,8%	6,9%	13,9%	0,0%	0,0%	0,0%
하	21	26	0	10	26	1	0	3
	24,1%	29,9%	0,0%	11,5%	29,9%	1,1%	0,0%	3,4%

위 표와 같이, ‘정보 부정확’, ‘부적절한 간접인용’에 대한 오류율이 가장 높았는데, 학생 1명당 보고서 내에서 정보 부정확 오류는 평균 4.7회, 부적절한 간접인용 오류는 평균 1.5회의 빈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1) 손혜숙(2020:22)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점을 비대면 수업의 단점으로 보았다. [#1_상]
- (2) 김수희(2017:1)에서는 곤충을 먹는다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로서 “entomophagy”가 있다. 이의 의미는 옥스 퍼드 온라인 사전에서는 “the practice of eating insects, especially by people” 즉 직역하면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영어의 기록은 1871년이라고 한다. “Entomophagy”와 유사한 단어로 “insectivory”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생명체(any organism)이든지 곤충을 주로 또는 곤충만을 먹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entomophagy의 개념을 “사람이 식용곤충을 먹는 것”이란 의미 (Joese Evans et al.(2017), pp.55~58)를 가지는 “곤충식(昆蟲食)”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자 한다. [#6_하]

- (3) 미디어 산업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 거리감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늘었고, 디지털 플랫폼의 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의 유통과 소비가 추가됐다. 지금은 미디어 혁명 시대입니다. 소비자와 디지털 플랫폼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0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가 26일 온라인상에서 '미디어 변혁 시대의 뉴 미디어의 선택'을 주제로 열렸다. [#19_중]

위 예문 (1)은 서지정보 부정확한 오류, (2)~(3)은 부적절한 간접인용의 사례이다. (1)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산업을 주제로 상 평가를 받은 보고서이다. 비대면 수업의 단점을 손혜숙(2020)의 논의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서지정보의 오류가 있다. 이는 ‘손혜숙·진설아(2021:22)’와 같이 출판 연도와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2), (3)은 부적절한 간접인용 오류의 사례인데, 이는 간접인용의 방식을 취하였으나 원 자료의 내용을 직접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는 미래의 곤충 산업에 대한 연구로 김수희(2017)의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세계농업, 207권, 43-66쪽)의 학술논문 1페이지에서 ‘식용곤충’의 개념을 간접인용했다고 밝혔으나, 서지 정보가 잘못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온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곤충을 먹는다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로서 “entomophagy”가 있다. 이의 의미는 옥스퍼드 온라인 사전에서는 “the practice of eating insects, especially by people” 즉 직역하면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영어의 기록은 1871년이라고 한다. “Entomophagy”와 유사한 단어로 “insectivory”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생명체(any organism)이든지 곤충을 주로 또는 곤충만을 먹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entomophagy의 개념을 “사람이 식용곤충을 먹는 것”이란 의미 (Joese Evans et al.(2017), pp.55~58)를 가지는 “곤충식(昆蟲食)”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자 한다. (김수희, 2017:43)

한편, (3)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디어 산업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이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방식을 취하지 않은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원문을 형식을 취하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감’, ‘미디어 대전환 시대’를 ‘미디어 혁명 시대’ 등 몇몇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간접인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증가했고, 미디어에 유통과 소비까지 더해져 디지털 플랫폼의 커머스 기능까지 강화됐다. 바야흐로 미디어 대전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와 디지털 플랫폼이 교차되는 시점에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디어 대전환 시대 뉴미디어의 선택’을 주제로 2020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순강(2020.11.17.). 코로나 이후, 모든 회사가 미디어 회사 된다?, 사이언스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

따라서 이상의 연구는 학문적 글쓰기 관습에 근거하여 정확한 출처 표시에 따른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기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생이 작성한 보고서 27편을 대상으로 자료 사용 비율, 자료 유형 빈도, 인용 방식, 인용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평균적으로 31.38%의 비율로 자료 인용을 하였으며, 자료 인용이 나타난 어절 수의 양은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 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즉 상 집단일수록 원자료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 집단의 보고서일수록 자료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인용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 유형이 보고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보고서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구보고서($\beta=0.341$)이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은 신문기사($\beta=0.041$)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셋째, 인용 방식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학부생들은 평균적으로 직접인용(41회)보다 간접인용(194회)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빈도수를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간접인용 오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인용의 횟수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숙한 필자는 능숙한 필자보다 원자료의 정보를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인용 방식의 오류를 분석한 결과, 서지정보가 45.1%로 가장 많은 오류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인용 오류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지정보 오류는 서지 정보를 잘못 제시한 사례가 평균 4.7회, 직접인용에 가까운 간접인용 방식을 취하는 오류가 평균 1.5회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적절한 간접인용 오류는 표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정확한 출처 표시에 따른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기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 강민경(2013),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민(2019), '자료 활용 글쓰기' 교육 내용의 교과서 구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4), 읽기 쓰기 통합 활동에서 의미 구성의 내용과 이행 과정 연구, 독서연구 11, 한국독서학회, 141-180.
- 손달임(2021), 외국인 유학생의 자료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용 교육 방법 연구: 학문 목적 글쓰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3, 267-294.
- 송치순(2014), 담화 통합 활동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유나(2014), 자료 활용 글쓰기에 나타난 초등학생 필자의 의미 구성 양상 연구, 국어교육 146, 한국어교육학회, 257-274.
- 이수상(1999), 지식사회학의 연구방법으로서의 인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55-178.
- 이유경(2016),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인용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2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3-232.
- 이인영(2011a),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이용 실태 분석, 비평문학 41, 한국비평문학회, 279-320.
- 이인영(2011b), 외국인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493-526.
- 장성민(2015), 고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서 분량에 따른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논증 양상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56, 국어교육학회, 194-233.
- 최선경(2009),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인용방식의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99-324.
- 최숙기(2018), 중등학생의 자료 통합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글 차용하기 수행 양상 연구: 인용과 환언하기를 중심으로, 작문 연구 38, 한국작문학회 201-245.
- 최승식(2015), 설명문쓰기의 담화종합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은지(2009),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umming, A., Kantor, R., Baba, K., Erdosy, U., Eouanzoui, K., & James, M. (2005). Differences in written discourse in independent and integrated prototype tasks for next generation. *Assessing writing* 10(1), 5-43. Retrieved from TOEFL.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75293505000140>
- Weigle, S. C., & Parker, K. (2012). Source text borrowing in an integrated reading-writing assessment.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1, 118-133. Retrieved from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60374312000215>

〈토론〉 “외국인 학부생의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 사용 양상
-인용 오류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서형(경기대학교)

이 연구는 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부생 글쓰기 자료에서 나타나는 인용 방식의 오류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부생을 가르치는 많은 한국어 교수자들이 가지는 고민인 동시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장의 근거 제시 전략으로서의 ‘인용’은 학술적 글쓰기가 요구되는 외국인 학부생에게 유용한 교육 내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접근 태도가 선결되어야 비로소 이 전략을 제대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 발표에서 제시하는 학습자의 인용 오류 유형 분석 결과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 내용 개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 및 교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갖게 된 궁금증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부생들의 글쓰기를 평가 기준에 따라 ‘상-중-하’ 수준으로 분류하셨는데, 분석 대상으로 삼은 보고서들은 ‘(직/간접) 인용’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신 것이지요? 각 보고서들의 주제, 요구된 분량은 어떠하였는지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고서의 ‘상-중-하’ 수준 평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학부생 자료에서 나타난 오류의 예들을 귀납적 분석 방식으로 유형화(서지정보 오류: 정보 누락, 정보 부정확, 개인용 미명시, 인용 방식의 오류: 인용 표시(구) 누락, 부적절한 간접인용, 부적절한 직접인용, 인용 내용의 오류: 자의적 해석, 관련성 결여)하셨습니다.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윤리적 글쓰기의 필요성’이라면(인용이 근본적으로 윤리를 전제하나), 이 오류 유형 분류를 조절할 여지가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문을 읽다 보니, ‘서지정보 오류’, ‘인용 방식의 오류’, ‘인용 내용의 오류’의 세 유형 중 결국 ‘표절’과 같은 윤리적 문제는 ‘서지정보 오류, 인용 방식의 오류’와 더욱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넷째, “보고서 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하>중>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보고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료를 인용한 어절 수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참고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말한다.”라고 자료를 해석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보고서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원문 직접 인용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Weigle & Parker 2012:128, Cumming et al. 2005)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는데 ‘어절의 양’과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의 관련성을 인과 관계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섯째, 직간접 인용의 빈도를 측정하셨는데, 문법 형태 표지로서 빈도수를 계산한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인용의 부적절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즉 다시 말해 직간접 인용의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용된 부분의 질적 평가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섯째, “상 집단일수록 원자료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글쓰기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등처럼 연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습자들의 인용 오류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는 ‘인용을 잘하기 위한 인용 방법 교육’, ‘인용을 잘하기 위한 윤리 교육’의 두 가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발표문을 정리해 가실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인용의 문제와 관련한 소중한 연구의 토론을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